

방파제 유실·도로 침수...태풍 피해 속출

전남 51건, 광주 42건 신고 피해 규모 예상보다 적어 농작물 468ha 침수 피해 곳곳 정전으로 주민 불편

강풍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전남지역에서는 방파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26일부터 27일 사이 태풍 '바비'의 직접 영향권에 든 전남은 눈·발이 침수되고, 가로수와 도로가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등 51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후 흑산도 초속 47.4m, 거제도 43.4m의 강풍이 불아지면서 거제도 방파제가 무너졌다. 신안군은 길이 480m의 방파제 중 300m가량이 유실 또는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안 거제도(47가구)·장도(66가구)·중태도(67가구)·상태도(51가구) 등 4개 섬에 정전이 나 127가구가 심한 불편을 겪었으며, 현재 일부 가구의 복구가 완료됐다.

영암과 여수·해남·보성 등에서는 25건의 가로수가 유실됐으며, 순천에서는 오후 8시부터 한 시간 동안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가곡동과 연향동·덕월동·조례동 일대 도로가 침수됐다가 밤 10시께 배수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벼 쓰러짐 140ha와 과수낙과 328ha 등 농작물 피해면적이 468ha, 비닐하우스 전파 0.7ha 등 농작물의 피해도

발생했다. 다만, 수산증양시설 피해 집계는 현재 진행중인 상태로 최종 집계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쓰러진 가로수와 전신주는 제거 및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손된 가로수와 전신주는 복구 중이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결항됐던 항공기와 철도의 경우 27일부터 정상운항에 들어갔다.

광주에서도 42건의 강풍, 도로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26일 오후 광주 북구 문흥동과 오치동 일대에서 2500여 가구가 정전됐다가 50분 만에 복구됐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는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휘어지면서 전선과 접촉해 정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풍으로 통제됐던 육상과 해상·항공 교통도 27일부터 점차 재개됐다. 목포·여수·완도·고흥 등 여객선 운항이 이날 오전

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여수공항의 경우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은 정상 운행 중이며 서울과 강원을 오가는 일부 항공편은 결항 중이다.

전날 오후부터 운행이 중지됐던 경전선 광주송정~순천역 구간과 호남선 광주송정~목포역 구간도 이날 오전부터 모두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강풍으로 통행이 제한됐던 신안 천사대교(길이 7.2km)도 태풍특보가 해제된 이날 새벽 4시부터 통행이 재개됐다.

지난 2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누적 강수량은 순천 145.2mm를 최고로 화순 이양 126mm, 구례 피아골 119mm, 장흥 유치 117.6mm, 강진 112mm, 신안 압해 63mm, 목포 52.7mm, 광주 33.6mm 등이 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제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간 27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가로수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강풍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 할취고 간 신안군 흑산면 거제도항 방파제가 처참하게 파손됐다. /연합뉴스

'육탄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승진

검찰 630명 승진·전보 인사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났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등 630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냈다.

형사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이상윤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옥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임명됐다. 2차장검사에는 최성필 의정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검사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 역할을 해 온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이 발탁됐다.

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파견을 마치고 돌아와 맡는다.

법무부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광주지검 차장검사 발탁과 관련, 일선 형사·공판부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형사부장 등을 적극 발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7개월간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엔 이상갑(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인권국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소록도 한센병력자를 대리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했다.

이런 직제 개편으로 3차장은 선거·노동 사건 등 공공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공직자·기업범죄 등 반부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는 행정위 서울고검 검사가 국무

광주지검 인권감독관으로는 이진호 고양지청 부부장 검사가 자리를 옮기고 장흥지청장에는 김동희 대검 검찰연수관, 순천지청장으로는 임현 대검지청 차장이 발령났다. 김 신임 장흥지청장은 법무부의 능력이 검증된 여성 검사 발탁에 따라 발령됐다. 해남지청장은 박건욱 서울중앙지검 부장장이 맡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13명 징계

최근 5년...해고 8건, 견책 2건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비위를 저지른 학교 운동부지도자 13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의 2016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고 8건, 견책 2건, 감봉 1건, 경고 1건, 주의 1건 등 총 13건이다.

5년간 학교 운동부 관련해 민원도 총 14건이 시 교육청에 접수됐다.

민원 접수 유형별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력 및 가혹행위 6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성추행 3건 ▲금품·향응 수수 및 요구 3건 등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여전히 학교 운동부 폭력 문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운동부 폭력 및 고충신고센터 활성화', '사안 경중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스포츠 교육계 안에서 폭력과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스포츠 교육이 지나치게 성과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 운동부의 경험이 다양한 가능성을 시도하고 발견하는 교육 활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의 엘리트 체육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0mm 비

무더위·열대야도 지속

광주·전남 지역에 28일 새벽부터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후텁지근한 주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새벽부터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 남해안에 50~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비는 29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례·곡성 등 전남내륙 지역에도 대류 불안정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20~6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

지리산 인근에는 150mm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약해진 지반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28일과 29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기온은 31도 이상 오르면서 비로 인해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9~32도,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24~26도, 낮 최고기온은 29~31도로 분포 하겠다. 또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동안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됨에 따라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짧은 시간 강수가 집중돼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산간·계곡 등의 피서객들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희롱 혐의 40대 여중 교사 무죄 판결

광주지법 "공소사실 인정 부족"

제자와 상당하다 "성욕불만이나"고 말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학교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 모 여중 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상담하던 학생의 막대사탕 먹는 모습을 보고 '성욕 불만이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학생의 고소장 내용과 해바라기센터 등에서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실과 다른 진술 내용도 발견됐고 직설적인 고소인 성격에 비추어 해당 내용을 두 달 넘도록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사건 이후에도 A씨를 찾아가 1대 1 상담을 하고 다른 학생 가장광문에 동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A씨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당한 학생의 행동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재판장은 "당시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담임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형성돼 있었다"면서 "A씨에게 꾸지람을 들은 이들이 피해 학생에게 성비위로 신고해주면 자신들과 어울리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피해학생이 이같은 제안에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대 4차산업혁명 인재 육성 전공강좌 운영

광주대학교가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전공강좌를 개발해 운영한다.

광주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4차산업혁명 전공강좌 지원사업' 운영계획 방침에 따라 자율혁신학부(과)를 제외한 28개 학부(과)를 대상으로 실험 실습비, 외부인사 초청특강비 등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2월까지다.

이번 사업은 4차산업혁명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공학·문화에 속 및 인문사회계열의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과정 개발, 4차산업혁명 관련 전공역량 함양을 통한 취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선정 기준은 ▲교과목의 부합성 ▲예산편성의 합리성 ▲취업 연계방안의 구체성 ▲결과 환류방안의 구체성 등 4개 항목이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5개 분야의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총 117억 원이 투입되는 대학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반도건설 명품브랜드 양동 반도유보라

(가칭) 양동시장 1지구 지역주택조합

900만원대~

7.10 부동산정책 최대수혜단지!

전매제한 제외 유일단지

광주 최초 브랜드타운 조성

최초가 프리미엄을 만든다! PREMIUM 5

- 01 **쇼핑의 메카**
양동복합상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 02 **문화 생활권**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근접으로 풍부한 문화생활권
- 03 **높아지는 가치**
당 사업자, 인근 재개발, 도시재생유일사업
- 04 **금융·비즈니스 심장부 인접**
충정로, 금남로
- 05 **더블 역세권**
지하철 1호선, 2호선, 버스충돌터미널

8月中 OPEN 선착순 조합원모집

모집문의 062-606-5600

시행사(가칭) 양동시장1지구지역주택조합 | 세무·소매 | 광주광역시 남구 구룡로 92-4 | 시애틀 | 반도건설 | 신도시 | 아시아신학(주)

본 제작물에 사용된 이미지, 기재된 내용, 문구, 건축의 색채, 디자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또는 표기된 것으로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되거나 차이가 있습니다.